

2019 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신약의 정경 안에서의
놀라우신 그리스도

메시지 3

사람-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이
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함

성경 말씀: 창 1:26-27, 눅 1:35, 요 1:1, 14, 딤편 3:16

- I. 사람-구주로서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—눅 1:35.
- A. 육체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—마 5:2, 요 8:58, 눅 2:40, 52.
 - B. 육체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—딤편 3:16.
 - 1. 그분은 아들로써 뿐 아니라 또한 완전한 하나님,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써 육체로 나타나셨다—마 1:20, 눅 1:35, 요 8:29.
 - 2. 하나님 전체,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에 참여하셨다—요 1:14, 눅 1:35, 갈 4:4.
 - C.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은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이다—눅 1:35, 요 1:1, 14.
 - 1. ‘연결’은 생명 안에서의 하나에 관한 것이다. ‘연합’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과 관련 있다. ‘합병’은 상호 내재하는 인격들을 가리킨다.
 - 2.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,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로 만드셨다—요 1:14.
 - 3.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다—눅 1:35, 42-43.
 - 4. 하나님-사람으로써 사람-구주는 신성한 본질을 가지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, 사람의 본질을 가진 사람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—마 1:20, 눅 1:31, 35, 갈 4:4.
 - a. 성령께서 사람 처녀 안에 잉태하신 것은 신성한 본질과 인간적인 본질을 가지고 성취되었고, 인간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의 연합으로 조성되었으며, 제 삼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은 채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-사람,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분을 산출하였다—눅 1:35.
 - b. 이것이 가장 놀랍고 탁월한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—사 9:6.
 - 5. 육체되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삼일 하나님의 합병체이시다—요 14:10-11.
 - a.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합병체이시다. 신성한 삼일성의 세 분은 상호 내주하심과 하나로 함께 일하심으로써 한 합병체로 합병되신다—요 14:10-11.
 - b. 그분께서 육체되셨을 때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 분께서 이 합병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—요 1:14.
 - 6.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삼일 하나님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으로써 주 예수님은 삼일 하나님-사람이시다—요 1:14, 골 2:9, 딤편 3:16.
 - a. 그리스도는 하나님-사람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-아들-영-사람이시다—마 1:20, 눅 1:35, 요 8:29.

- b. 우리가 믿고 영접한 구주는 놀라운 삼일 하나님-사람이시다—눅 2:11, 행 5:31, 빌 3:20.

II. 사람-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한다—엡 1:9, 3:11, 창 1:26-27.

- A.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—계 4:11, 요 1:14, 눅 1:35.
- B.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서 받아들여 담고, 그분의 속성 안에 계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—창 1:26-27.
- C.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기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 되었다.
 - 1. 창세기 1 장 26 절과 27 절에서 형상은 내적 존재를 가리키고, 모양은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—고후 4:4, 골 1:15, 히 1:3, 빌 2:7.
 - 2.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복사판과 관련된다.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—롬 8:29, 히 2:10.
 - 3. ‘형상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는 역량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.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담는 용기가 되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—창 2:7, 고후 4:7.
 - 4. ‘모양’은 외적 형태, 외적 모습, 외양을 가리킨다. 따라서 ‘모양’은 표현의 문제이다—창 1:26, 빌 2:7.
 - a.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, 그분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외양을 갖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.
 - b. 형상은 외적 표현의 내적 실재이고, 모양은 형상의 표현, 혹은 그 외적 나타남이다.
 - 5.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한 속성들, 특히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과 관련된다—요일 4:8, 16, 1:5, 롬 3:21-22, 히 12:10.
 - a.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.
 - b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기 위한 능력이다—눅 1:75.
- D.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게 했으므로, 사람이 그분을 담고 표현하게하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되심을 통해 아들 안에서 오셔서 두 번째 사람이 되셨다—고전 15:47.
- E. 누가 복음은 신성한 생명이 그 내용으로 채워진 인간 생명을 사심으로써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하나님-사람을 계시한다—눅 7:11-17, 36-50, 10:25-37, 19:1-10.
 - 1.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은 인간 미덕들을 지닌 주님의 인간 본성 안에서 표현되었다. 따라서 주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신성하며, 신성하게 인간적이었다—눅 1:26-35, 2:7-16, 34-35, 40, 52.
 - 2. 우리는 주님을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한 삶을 사신 분으로 알아야 한다.